

‘전남형 상생일자리’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탄력

2030년까지 48조5천억원 투입...일자리 12만개 창출 전남도·신안군·신안군수협·새어민회 ‘상생협약’ 체결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선도 추진...지역경제 성장동력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전남형 상생일자리가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는 9일 신안군·신안군수협·새어민회 등과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 김길동 신안군수협 조합장, 장근배 새어민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닻자망 어업인으로 구성된 새어민회와 신안군수협이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과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에 기본적 인식

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 해상풍력 제조업체 유치와 전남도내 해상풍력 연관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상생협약 후속 조치로 실무협의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 어업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발전사, 제조업체, 지역주민 등 모든 주체가 상생 협력한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 투자협약식과 전남형 상생일자리 선포식을 올해 중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반대로 인해 사업이 좌초된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유사 사례를 검토해 민간발전사 중심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지역사회가 참여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로 추진해왔다.

김영록 지사는 “상생협약은 전남의 비전을 공감하고 새로운 전년의 도약을 염원한 지역주민과 어업인 덕분이다”며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세계 최고의 발전단지 만들고, 전남 서남해지역을 해상풍력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민선 7기 전남도의 핵심 프로젝트인 ‘블루 이코노미’ 중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새어민회는 9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및 전남 서남부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새어민회 장근배 회장, 신안군수협 김길동 조합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48조5,000억 원을 투자해 450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12만개를 창출하게 된다.

이 사업은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목표달성을 비롯해 해상풍력산업 발전·화학원료를 대체할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기폭제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의 핵심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인공지능 이용 지역문화재 보전

‘유무형 유산 아카이빙’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

광주시가 인공지능(AI)과 문화기술(CT)을 활용해 지역 문화재를 보전한다.

광주시는 지난 8일 광주CGI센터에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역학계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시비 25억원)이 투입되는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은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인공지능(AI), 문화기술

(CT)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 광주형 문화유산 관리모델이다.

기존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관리정책에서 나아가 문화유산의 아카이빙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영화·게임·전시물 등의 콘텐츠 제작·활용, 인공지능 계승체계 등을 목표로 한다.

무형문화재의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로만 전승되는 특성과 전염병 등으로 그 맥이 끊길 위험이 상존한 가운데 이번 사업의 ‘인공지능 동작판별 분석시스템’을 이

용, 무형문화재의 동작을 판별·분석하면 실제 전승에 활용하고 보전하는 실시간·비대면 계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문화재 보전·활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인력으로 인공지능 답답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일자리 창출, 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문화유산과 인공지능·문화기술이 결합된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소방, 장마·태풍 구조 한 달간 2천여건 인력 9천여명·장비 1,700점 투입 재난대응 총력

올 여름 집중호우와 3차례의 태풍기간 전남소방본부가 2,000여건의 구조활동을 벌여 731명의 인명을 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와 잇따른 3차례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개월여 동안 총력을 펼쳤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이 기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이 기간 전남소방본부 총 9,196명의 인력과 1,733점의 장비를 투입해 재난에 대응했다.

8월 집중호우 기간에서는 총 6,096건의 신고를 접수해 1,631건의 구조활동으로 731명을 구조하고 953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시·군별 구조신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구례(637건)였으며, 나주(218건)·담양(131건)·화순(131건) 순이다.

최근 3차례 북상한 태풍 내습기간에는 모두 369건의 구조활동을 펼쳤다. 이 중 시설물 관련 안전조치가 312건이다. 태풍 벨로는 8호 대비 145건, 9호 마이삭 167건, 10호 하이선 57건이다.

전남소방본부는 신고접수 전화폭주에 대비해 비상접수대를 추가 설치하고, 비긴급 119 신고전화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교환기 안내멘트를 변경하고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에 5,048명이 동참했으며, 119 이동상담센터 운영으로 수해지역 주민 129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80억 투입...도로 확·포장, 저수지 보수·보강 등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사업 8개와 환경문화(공모)사업 7개 등 총 15개의 사업이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국비 72억원 등 총 80억원을 투입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국비 61억원보다 18% 늘어난 것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생활기반사업은 도로 확·포장(7건), 저수지보수·보강(1건)이, 환경문화(공모)사업은 누리길(2건)

조성, 여가녹지(2건) 조성, 경관(1건) 조성 등이다.

환경문화(공모)사업은 전국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한 58개 사업 중 총 8개가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 중 광주시 사업이 7건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생활기반사업은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4건을 선정하는데 광주시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뿐 아니라 도시민의 쾌적한 휴양공간

이 조성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부터 지정돼 시행되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제한이 많아 생활불편이 있었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총 211개 사업에 917억원(국비 733억원·지방비 184억원)을 들여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인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정비, 농·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환경·문화사업인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조성,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도, 추석맞이 ‘정보화마을 상품’ 특판

23일까지 비대면 방식 판매...최대 30% 할인

전남도는 오는 23일까지 ‘추석맞이 정보화마을 상품 특판행사’를 개최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보화마을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는 매년 도청에서 직판행사를 펼쳐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온

라인과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판행사는 사과와 배, 굴비, 버섯, 나물 등 계수용품류 비릇 견어물, 과일세트 등 10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상품들은 전남도 직영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와 정보화마을 쇼핑몰 ‘인

빌(www.invil.com)’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전남도는 시·군 민원실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제품 카탈로그를 비치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서 상차림 농수산물 등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화마을 농수특산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유튜브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채널과 함께 전남도 SNS서포터즈를 통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전남 농수산물식품 ‘미국 수출’ 사상 최대

7월 기준 5,390만달러...작년대비 42.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미국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농수산물식품의 미국 수출액은 5,39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6% 증가했다. 이는 수출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

대치다.

주요 수출품목은 김과 유자차, 음료, 배, 전복 등이다. 최대 수출품인 김은 3,751만달러로 지난해 대비 56.0%, 유자차는 55만달러로 70.8%, 장류는 52만달러로 38.8%, 주류는 46만달러로 8.3%가 각각 증가했다.

미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1,000만달러 이상 증가를 보여왔다. 이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미국 상설판매장 운영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내 전남도 상설판매장은 LA 4개소, 시카고 1개소, 뉴저지 1개소 등 6개소를 운영 중이며, 미국 수출효과에 힘입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또 오는 11월 미국과 일본에 각각 1개소, 12월에는 태국에 1개소를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M 전남매일 함께육아 캠페인

같이 하는
함께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JeollaNamdo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